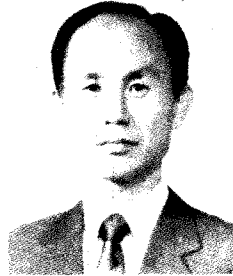


한국양계의 성장과정과 발전방향



노영한 / 대한양돈협회 전무이사

「월간양계」 창간20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월간양계」의 지난 20년이 근대 우리나라 양계사이며 양계산업이 우리나라 축산업을 주도하여 왔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큼니다.

오랜기간 「월간양계」를 만드는 일에 참여해 온 필자로서는 참으로 세월이 빠르고 그간 「월간양계」가 업계와 함께 하여온 지난 일들이 아름다운 추억으로 되살아나기 때문에 더욱 감회가 큰가 봅니다.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역사의 단계마다 구분하여 많은 이름들을 붙이지만 한나라가(왕조) 흥망성쇠를 이루는데는 일정한 4단계의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나 회사도 예외는 아니며 한 산업을 놓고 볼 때도 그렇습니다.

양계산업도 수난기, 부흥기, 기반조성기, 성장기 등으로 해방이후 70년대초까지를 나누어 봅니다. 수난기가 있어야 어떻게든 수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부르짖음이 있게 되는데 종교에서는 기도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이러한 외침이 국민적 합의를 이루게 되면 이것이 에너지가 되어 나라를 세우고, 회사를 세우게 되는데 양계산업의 경우 이러한 에너지는 장안동양계친목회부터 생성되기 시작했다고 보면 틀림없겠고 이러한 에너지는 가끔협회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양계산업의 경우에는 산업의 발달보다 협회가 먼저 탄생하고 협회가 산업발전의 구심점이 되었다는데서 특이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초창기 협회가 주관한 월례강습회는 단순한 기술 경영정보를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양계인들이 모여서 양계업계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산업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독교 교회사에서 초대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여서 공부하고 떡을 나누며 친교한 것과 너무도 흡사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계협회 초창기는 지식의 사유화가 아닌 공유에 힘썼고 월간양계도 이러한 정신이 밑바탕이 되어 창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생각하면 노하우니하여 기술의 전수에 인색한데 그때, 양계인들은 동업자 또는 양계가족이라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도봉구 공릉동에 검정소 부지도 자발적으로 간단히 마련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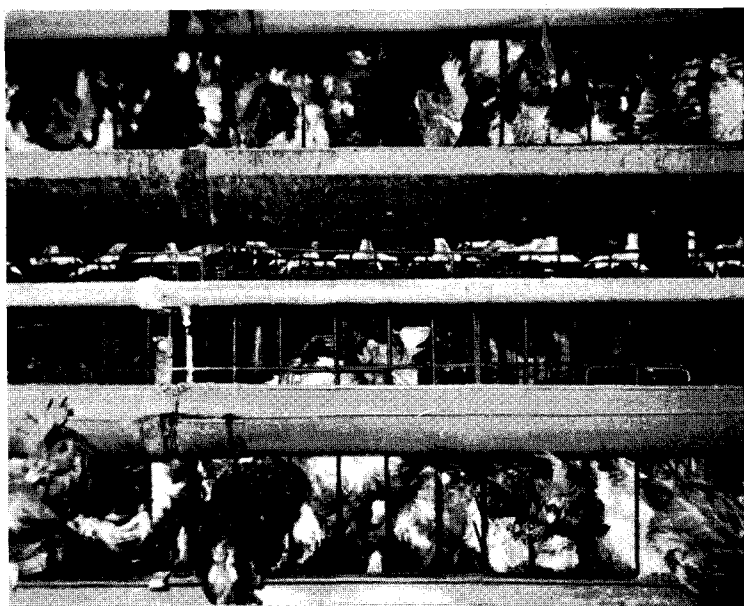
있었습니다. 당시 재계중진들도 자기들도 잘 안되는 것을 양계인들은 해낸것을 보고 놀랄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초창기의 국종계수입에서도 공유(公有)하는 기본정신이 있었으나 오래가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렇게 고난기를 통해 기반조성기를 마친 양계산업은 성장기에 들어갑니다. 애들이 크는 모습을 보아도 유년기 소년기는 티없이 맑고 빠르게 자라지만 청년기를 넘어서서 장년기에 들어가면 미운짓, 나쁜짓을 많이 하게 되는데 성장기의 양계산업도 수난기나 기반조성기와 같을 수는 없고 업계의 규모가 커지면서 동업자에서 경쟁자로 인식이 바뀌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직접 채란이나 육계를 기르는 양계업자 보다는 외국에서 종계를 수입해서 병아리를 공급하는 부화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외국의 좋은 종계를 수입해서 양계농가에 우수한 병아리를 공급한다는 역할에 외국 육종회사의 대리전 양상까지 띠게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외국육종회사의 지원으로 한국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혈전이 계속되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외국의 자본이 들어와 직접 GPS와 PS를 함께 기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력이 얼마나 위대한

가를 보여주어 아직 자본축적이 안된 국내 양계인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을 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초창기의 정신적 공동체의식은 식어가고 업계의 구심점도 다원화되게 됩니다.

세이버협회, 바브룩협회 등 품종별 협회로 구심점이 옮겨가고 국내업자도 한협이라는 회사와 후에는 협력회라는 협회성격의 모임체로 다원화되게 됩니다. 이렇게 업계의 에너지가 분산하게 됨에 따라 일시 외국종계의 수입이 중단도 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진통을 겪게 됩니다.

성장기를 거치면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마련인 규모간(소위 계층간)갈등이라는 것도 큰 문제없이 원만하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은 같은 뿌리에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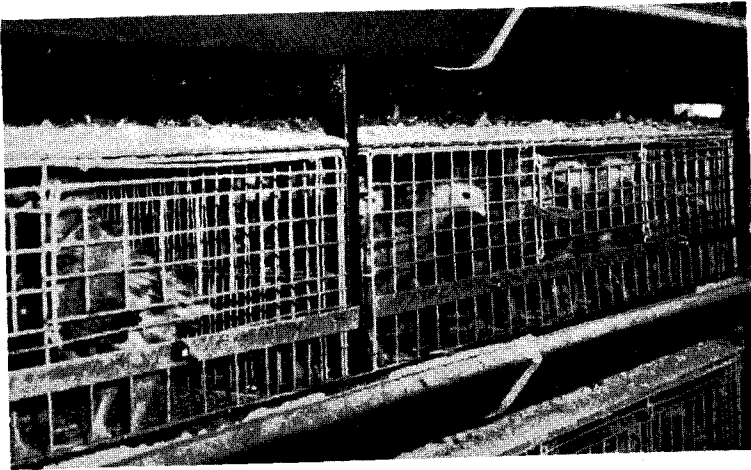
왔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료나 양돈에서의 계층간 갈등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농외자본(배합사료에서 대기업)의 진출에 따른 것인데 양계는 양계가족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이 없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에선 수산업계의 자본이 양계에 투자했는데 우리나라에선 양돈에 투자함으로써 양계업계로 보면 태풍이 진로를 바꾸어 산동반도로 빠져나간 것과 같은 행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농외자본이 유통, 가공 처리에 투자하면 긍정적인 면이 많지만 우리와 같이 이원론적 사상이나 흑백논리에 익숙한 사회에서는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장기를 지나면

성장기를 지나면 성숙기가 오고 성숙기를 지나면 몰락기가 (혹은 쇠퇴기)가 올텐데 성숙기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이며 유지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가가 관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완전한 성숙기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방심과 안이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은 분명히 있지만 결실의 가을을 맞보기도 전에 겨울이 온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가을인가 생각했는데 눈이 오고 얼음이 언다면 월동준비도 없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기후의 변화는 봄이 없는 시베리아나 북극처럼 동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지금까지는 정부의 축

산정책이 축산진흥정책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우리끼리의 문제이었지만 90년대에는 우리가 원하던, 원치않던 국제화시대에 국제농축산물가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계란의 경우에 일반 식란의 수입은 어려울 것이고 닭고기의 경우에는 미국이 개방압력을 넣어보았자 문열어 놓으면 브라질, 태국, 헝가리 등 영뚱한 나라만 좋은일 시킬터이니 닭고기야 개방압력을 넣겠느냐고 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혈압상승도 막고 정신건강에는 좋을지 모르지만 이번 미의회 보고서에 지난 올림픽때에 미국 피엑스를 통한 닭고기 공급이 동이 났었다는 보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최근 헝가리 등 우리와 국교를 맺은 나라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팔고 싶어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편할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계란의 경우도 액란이 수입된다면 좁은 시장에서 가격이 큰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앞으로 10년간 우리에게 다가올 변화들을 우리는 충분하지는 못할망정 대개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8월 축산장기발전 대책을 선보였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업계에서 함으로써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는 것입니다.

지금울 양계산업의 성숙기라고 보지말고 수난기라고 생각하면 재발견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습니다. 여건이 변하기는 했지만 역사는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과거 60년대 후반에 양계업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의 여건과 환경에 적용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옛어른들은 어떻게 처리했는가를 찾아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부가 만든 안을 보면 사육규모가 '88년말 58,467,000수에서 106,193,000수로 182%나 크게 증가합니다. 이와 반면에 사

육호수는 194천호에서 65천호로 129천호의 양계농가가 양계를 그만두어야 하고 이중에는 전업농가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업계의 고통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양계농가의 66.5%가 10년 동안에 탈락해야 하므로 10년후 양계의 적정사육규모 등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될것입니다. 과거 일본에서 5대재벌이 양계를 해보겠다고 하던 것을 기억할때 몇명이 양계업에 종사해야 되는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셋째, 산업구조도 양계조합 중심과 계열화중심으로 이원화하는데 따른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외국의 경험을 검토해보면 우리는 시행착오를 안해도 될 것입니다.

넷째, 현재의 안대로 되면 일본형 양계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일본형양계가 우리가 채택할 모델로 이상적이나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커다란 수습조건은 우리는 90%정도만 생산하고 10%정도의 수입물량으로 하며 또한 조합이나 계열주체가 국내 수급을 함께 조절하는 것이 쉽고 편하게 생각될 수도 있으나 앞으로 변화는 국제환경에서 이러한 발상이 현실에는 어떻게 적용될 것이냐 하는 것도 연구할 문제입니다.

2천년대의 한국의 양계산업

모델로 꼭 일본형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EC 여러나라나 미국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어미 육하면서 시어미 닭아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얼마나 운동권 학생들이 고문수사를 육하면서 고문수사를 하고 박종철사건을 증오한 그들이 제2의 고문치사 사건을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고는 하지않고 각목으로 구타한 사실을 솔직히 시인한 것은 그래도 학생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일본의 농정이 실패했다. 일본에선 배울게 없다. 일본을 따라가면 일본의 축산처럼 된다고 하면서도 일본을 닭아가고 일본을 흉내내는 것이 우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외국에 국토가 좁고, 사료자원이 없는 나라들이 양계선진국으로 양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서 성공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란같은 나라입니다. 이제는 주변국가에 계산물외에 세계도처에 종계, 기계기구, 사료기술, 동물약품 등 연관산업수출도 팔목할만 합니다. 이런 나라를 모델로 삼고 이런 나라를 닭아갈 것이냐, 일본을 모델로 삼고 일본을 닭아갈 것이냐는 양계인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닭아가는 데는 가만히 있어서 안됩니다. 모델을 만들고 닭아 가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양계산업의 전망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으면 누구를 닭아가겠습니까? 노력하기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명이나 팔자가 아니고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계산물 수출국도, 수입국도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창간20돌을 맞는 「월간 양계」는 협회를 중심으로 2000년대 양계산업의 모델을 설정하는 일에서부터 그렇게 되도록 양계업계의 에너지를 모으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20년전 창간 목표를 이제 다시 펼칠 수 있는, 펼쳐야 하는 재창간의 여건이 성숙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어느 개인이나 직원이 할 수 있기 보다는 협회 임원, 편집위원, 학계, 업계의 많은 분들의 참여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0년전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의 참여로 에너지가 결집되었던 것을 기억하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창간 20돌의 성년이 되어 성년에 맞는 시대적 사명을 부여받은 「월간양계」의 발전과 맡은 일들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나가는데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행운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